

리이후나

종교가 세상에 주는 유익, 14쪽

파문당한 후
다시 성약을 되찾는 과정, 22쪽

첫번째 시험에 대해 선지자가
기록한 네 가지 기록, 26쪽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강력한 모범, 32쪽



스펜서 더블유 김블(1895~1985)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1973년부터 1985년 사이, 교회 회원 수는 거의 두 배로 성장했고, 후기 성도관 영어 흡정역 성경이 출판되었으며, 성전의 수는 15개에서 36개로 늘었다. 1978년 6월, 김블 회장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 (공식선언-2 참조)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약을 지킴으로써 얻는 신권 권능

특집 기사

- 14 세상에 대한 종교의 사명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옥스 장로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사회 가치의 여덟 가지 예를 나눈다.

- 20 일요일의 참된 목적
알렉세이 체메조프
우리는 친구인 니콜라이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다.
- 22 성약을 되찾다
익명
파문된 이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성약을 되찾게 되기를 바랐다.
- 26 첫번째 시현: 진리로 이끄는 열쇠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첫번째 시현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서로 다른 기록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다.

- 32 충실한 고등평의원
도널드 에이 코우
나는 한 겸손한 교회 회원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를 배웠다.

교회 본부 기사

- 8 우리는 믿는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 성스러운 가족 관계의 자양분이다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신기록을 세우다
리처드 엘 베이렛 이세
- 12 단상: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라린 포터 건트
- 13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라예보에서 홀로 가진 모임
아르민 빌헬름
- 36 신앙의 초상: 미카엘 린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날 신권은 이곳에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표지 사진 촬영: 코디 벨

48



42 자립과 복음 학습

데이비드 비 마쉬

복음을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48 주님의 병사

에녹 알 베르데 레예스

내가 가진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기려면 신앙이 필요했다.

50 진정한 친구 찾기, 그리고 진정한 친구 되기

영국의 청소년들이 진정한 우정이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한다.

54 포스터: 진정한 '좋아요'

55 처음으로 성전에 가던 날

마티아스 페드라자

그저 성전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직접 가 보고 싶었다.

56 신권 열쇠의 회복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60 질의응답

제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62 나만의 리아호나

리차드 엠 롬니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마치 개인적인 리아호나와 같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



76

66 마틴의 선택

린지 태너 및 베서니 바르톨로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안 마시겠다고 하면 예의에 어긋날까요?

68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

인형 만들기, 친구 사귀기
조던 라이트

70 교회사의 인물들: 계명의 책

71 우리들 이야기

72 사도들의 답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73 시블론처럼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이 물몬경의 영웅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했습니다.

74 자라와 함께 기도하기

쉐리 가빈

리지와 샐리엔은 친구에게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76 예수님 이야기: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아버지께 물어 보세요.



62

2017년 6월호, 제54권 제6호
리아호나 1444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화: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진 비 영,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러스 디 홈즈,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래리 알 로랜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질다 에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존드워즈, 매튜 디 플리먼, 로리 풀라,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샬럿 라카벨,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롱니, 민디 앤 셸루,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메건 알크넥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니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런호스트

디자인 인턴: 마이클 넬슨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크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에더어, 콘니 바슬프 브릿지,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티데 러퍼타,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5호, 제54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7 Vol. 41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자립과 복음 학습”, 42쪽: 여러분 자신만의 영적인 빛을 얻는 일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다음 활동을 고려해 본다. 불을 끄고, 가족들에게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한다. 몇몇 가족들에게는 손전등이나 촛불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 몇 분 동안 시간을 준 뒤, 다시 불을 켜다. 그림을 그리는 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한 후, 그 기사에 나오는 원리들을 토론해 본다.

“시물론처럼”, 73쪽: 경전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경전에 나오는 일화나 인물을 주제로 몸짓이나 그림으로 설명하여 맞추는 게임을 해 본다. 말을 하지 않고 경전의 일화를 몸짓으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가족들이 그 일화나 인물을 추측하여 맞추게 한다. 그런 다음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전에서 찾아 함께 읽고 왜 여러분이 그 인물을 존경하는지 설명한다. 그 인물들의 어떤 점을 여러분은 배우거나 키우고 싶은가?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8, 10, 12, 38, 39, 72, 79
- 경전, 42, 70
- 교회사, 70
- 금식, 41
- 기도, 10, 48, 74
- 모범, 32, 36
- 배움, 42
- 봉사, 4, 32, 68, 74
- 선교 사업, 4, 14, 20, 38, 40, 48, 60, 73
- 성약, 7, 22
- 성전 사업, 55

- 성찬, 13
- 소망, 22
- 순종, 20, 66, 73
- 신권, 7, 40, 56, 76
- 신권, 80
- 신앙, 36
- 아버지, 10, 12, 72
- 안식일, 13, 14, 20
- 어머니, 39
- 예수 그리스도, 39, 76
- 우정, 50, 54, 60, 68, 74
- 자립, 42

- 조셉 스미스, 26
- 종교적 자유, 14
- 지혜의 말씀, 66
- 첫번째 시편, 26
- 축복사의 축복, 62
- 치유, 40, 76
- 침례, 10
- 파문, 22
- 회복, 2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아

선 지자 조셉 스미스가 히버 시 김볼(1801~1868) 장로에게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라는” 부름을 주었을 때, 김볼 장로는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 이렇게 기록했다.

“오, 주님. 저는 언변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이 일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볼 장로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들로 의무의 길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겠다는 결의가 섰다. 그분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날 보호하시며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¹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업에 부름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김볼 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고(교리와 성약 4:3), 또한 합당하며,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년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이유로 이 사업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장년 선교사 여러분은 섬기고 봉사하려는 소망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희생과 사랑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까지도 갖추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점을 활용하여 진리를 찾는 당신의 아들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겨 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알고, 경험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더불어, 여러분은 신앙과 결단력, 용기와 확신, 단호한 결의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헌신을 더하실 것입니다. 헌신적인 선교사는 선교 임지에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존 테일러(1808~1887) 회장님은 선교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남성과 여성과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에게] …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 우리는 성신과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 명예롭고 성실하며 유덕[한 사람들 말입니다.]”²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 또 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 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에 구원을 가져오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4~5)

여러분이 받은 부름은 영감을 통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일할 때,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으며,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봉사를 통해 여러분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추억과 우정을 쌓게 됩니다. 저는 선교 임지보다 더 풍성한 행복감을 거둘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연차 대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³ 그 약속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봉사하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주

1. Heber C. Kimball,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67), 104.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73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이제, 어떤 이유로든 선교 임지에서 부름받은 기간을 다 완수할 수 없게 된 장로, 자매 선교사, 그리고 부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드린 희생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겪었을 실망감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탄의 다른 속삭임에는 귀를 닫으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 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간에, 우리 각자는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 이 메시지를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같은 주제로 언급된 말씀과 연계해 본다.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인, “회복된 복음을 나눔”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57쪽) 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문구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할 때나 부름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 보았는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힘과 영감을 간구해 보라고 권유한다.



lds.org/go/6176.
#futuremissionary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명찰 없는 선교사

크리스티 어레이브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그 선생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였다. 하루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후기 성도 선교사에 대한 그분의 질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답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분과의 대화가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물문경에 선교

선생님께
물문경 한 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업에 대한 몇 구절을 표시해서 선생님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지만, 그 생각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성신의 속삭임이며 그 느낌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었다.

두 달 정도 지나서, 나는 결국 선생님께 드릴 물문경을 준비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물문경이 내 가방 속에서 나오려고 안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겨울 방학을 시작하는 학기 마지막 날이었다. 물문경을 선생님께 건네 드린

그 삼 초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던 순간이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한 첫날, 나는 그분의 교실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내게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을 주셨다. 나는 복도에서 그 카드를 읽어 보았다. 선생님은 카드에, 물문경에서 내가 표시한 구절들을 “차근차근” 읽어 보았으며 내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적으셨다.

이제 나는 복음을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이제 곧 선교 사업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렌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어린이

선교사의 봉사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을 받지만,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하지요. 선교사들을 위해 아래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오른쪽 그림에서 찾아 주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어떻게 더 잘 준비되는가?

성약을 지킴으로써 얻는 신권 권능



신앙,
가족,
구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언제나]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신권 의식에 참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평안과 영원한 관점을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¹

우리는 어떻게 신권의 권능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물로 침례를 받고, 후에 주님의 집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들은 풍족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다우먼트는 말 그대로

권능의 은사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주시는 데 관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다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전에 가서 둘 다 같은 권능, 즉 신권 권능을 부여받습니다.”²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신권의 권능을 우리의 가족과 가정 안에 임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 속에 그런 권능을 불러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권 권능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³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권능에 더 잘 접할 방법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⁴

추가 성구 및 자료

니파이전서 14:14; 교리와 성약 121:36; 132:20; reliefsociety.lds.org



생각해 볼 점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신권 권능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주

1. 닐 엘 앤더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 95쪽.
2.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36쪽.
3. 린다 케이 버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21쪽.
4. 러셀 엠 넬슨, “신권 권능의 값”,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9쪽.

복음대로 사는 삶은 성스러운 가족 관계의 자양분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고, 그분들은 우리를 지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당신들께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가족은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얻고, 올바른 원리를 배우며, 영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가족을 주셨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사랑 넘치는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보살핌이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며 그 원리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¹ 복음의 원리를 토대로 세워진 가정은 주님의 영이 인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복돋는 평화로운 장소가 된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며 “하늘의 질서[이고] 해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본뜬 것”이다.² 이러한 가족 관계는 신성하며, 이 관계에는 신성한 책임이 따른다. 경전에는 부모는 진리와 빛, 사랑으로 자녀를 기를 의무가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에베소서 6:4; 교리와 성약 68:25 참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에베소서 5:25 참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출애굽기 20:12 참조)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³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가족 관계가 굳건해지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영적인 힘도 커진다. 또한,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가족이든지 나뉠의 어려움은 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모든 가정이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의 회원들과 교회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사려 깊고 민감해야 합니다.”⁴ 가족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 학대, 중독처럼 특히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각 가족의 상황을 아시며 사랑 넘치는 가정을 꿈꾸는 개개인의 소망도 아신다. 가족과 맺은 관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와 가정은 여전히 축복받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관계가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축복 중에는 지금 오는 것도 있고 다음 세상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움을 위해 노력하는 이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결혼과 가족을 수호하는 이들을 칭송하며”,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77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4. 닐 엘 앤더슨, “누구든지 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50쪽.



신성하고 성스러운 가족

“가족은 신성하[며]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2016), 158쪽.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법



친절히 대하고, 사과하며,
용서한다



건전한
가족 활동과
전통에
동참한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을 하고 교회와
성전에 감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봉사한다



경청하고 존중한다

신기록을 세우다

리처드 엘 베이렛 이세

딸의 침례식에 참석하려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놀라운 손길이 함께했다.



막 여덟 살이 된 딸아이는 나에게 침례를 받는다면 신이 나 있었다. 이 특별한 자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실 터라 아이는 더없이 신이 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침례 날짜가 가까워지자 내가 아이의 침례식에 참석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군용기 조종사이자 작전 보좌관으로서 평소에도 한가할 틈이 없는데, 작전 장교가 다른 임무로 자리를 비우자 상황은 정말로 숨들릴 틈 없이 돌아갔다. 눈앞에는 쉴 새 없이 임무가 떨어졌고, 나는 필요한 만큼 비행

승무원을 탑승시키느라 훈련을 취소하고, 대대 일과를 일부 미루는 한편, 몇 달 전부터 계획된 휴가도 반납해야 했다.

우리는 21일간의 비행 명령을 받았고, 일찍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작전 장교와 다른 작전 보좌관이 복귀하자, 나는 더욱 가족 행사를 이유로 부대에 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부대에 남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떠안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나는 언제나 직장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늘 있는 것은 아닌 데다 나는

나라에 봉사할 의무도 있었다. 내 상관은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나에게 결정을 맡겼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다음 임무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다음 임무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된다는 명령이 났고, 내가 딸의 침례식이 열릴 토요일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일정대로라면, 우리는 화물 집하 장소로 비행해 갔다가 대기 기지로 가서 다음

비행 전까지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런 다음 다른 장소로 가서 휴식한 뒤 장거리 수송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는 다시 다른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한 곳을 들렀다가, 복귀 후에 추가분 화물을 받아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한 번 마치려면 대개 최소한 일주일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이 내가 돌아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신앙과 기도 덕분에 나도 신앙을 발휘할 수 있었고, 머지 않아 눈에 띄게 평소와 다르게 임무가 진행되어 갔다.

먼저, 우리는 하루 이틀을 쉬는 대신 공중급유를 받고서 바로 첫 번째 국외 수송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승무원들을 위해 규정된 최소 휴식 기간이 끝나자 예정과는 다른 임무를 받았는데, 장거리에 있는 수송지로 비행해 갔다가 바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을 내리고 지상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은 전에 없이 순조로웠고, 최소한의 휴식 기간이 끝나자 우리는 본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마냥 신이 나서 곧 돌아간다는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스테이크 청소년 활동 일정에 맞추다 보니 조금 전에 침례식을 다섯 시에서 두 시로 앞당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수 담당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후 그는 승무원이 충분하니 우리 일정은 토요일 오후 다섯 시까지 미룰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시간이면 본래 침례식이 계획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집 근처 산을 넘어서자 또 하나 신앙을 시험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도시가 안개로 뒤덮여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필요에 따라 다른 비행장으로 회항할 계획을 세우고 점검표를 확인한 뒤 상황을 살피기 위해 고도를 낮췄다.

활주로를 향해 날아가 고도 200피트에 이르자 짙은 안개가 기체를 둘러쌌다. 그런데 고도 120피트까지 낮추자 갑자기 불이 켜진 활주로가 눈앞에 나타났고 몇 초 뒤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연으로만 보이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끝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오가며 여러 단계의 수송 과정을 마치고 임무 수행 최단 시간 신기록을 세우며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우연이 또 다시 이어져 나는 집에 돌아와서 잠시나마 딸의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내 조국과 우리 중대에 대한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 아이의 침례식 날짜를 다시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내 딸아이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추억을 선물받았고, 아내와 나는 모두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었다.(제3니파이 18:20) ■

글쓴이는 이 경험을 했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라린 포터 건트

교회 잡지

아버지는 알츠하이머에 걸리기 전 정신이 맑으실 적에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나 노래를 들려주곤 하셨다. 커다란 의자에 앉아 내 어린 남동생을 무릎에 안고서 방안 가득 울리는 그윽한 목소리로 당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가 눈에 선하다. 어께에 고양이를 올린 채 소를 돌보던 일부터 미국 유타 주 에스칼란테의 붉은 바위에서 미끄럼을 타던 일까지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몰랐다. 그러다 동생의 눈꺼풀이 사르르 감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멈추고 늘 똑같은 카우보이 자장가가 시작되었다.

*졸린 눈을 감으렴, 내 어린 목동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살펴 주실 거야
또 하루가 가고 이제는 잘 시간
자장자장 내 아가야 잘 자거라!*

그때 그 어린 동생은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의 병원에 누워 계신다. 아버지는 야자나무를 눈앞에 두시고도, 자신은 농로에 흐르는 물을 끌어와 즐밋춰 심은 옥수수며 토마토, 완두콩에 물을 대는 소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죽어 가고 계신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매일 같이 아버지의 침상 곁에 모여 있다. 유타 주 산악 지역에 사는 나에게 전화를 하신 어머니는 아버지께 오래된 가족사진을 보여 드리니 행복한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고 하신다. 오래전 저세상으로 가신 형제분들이 아버지의 머릿속으로, 또 가슴속으로 찾아오시는 일도 있다. 어머니는 애를 쓰시지만 아버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형제들이 송어를 잡았다며 저녁 전에 가서 말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신단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 필멸의 생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입[어] ... 낙원[에서] ...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엘마서 40:11~12)

어머니께 전화를 걸자 아버지를 바꿔 주신다. 아버지는 뜻밖에도 나에게 노래를 불러 주신다. “졸린 눈을 감으렴 내 어린 목동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살펴 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정말 알아보시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 테지만, 선물 같은 그 노래가 내 가슴으로 흘러 들어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신 자비와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다. 잠시 후 자장가가 끝나고, 나는 아버지의 눈꺼풀이 사르르 감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인생은 지나가고 말지만,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서 나는 희망을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을 믿는다. 나는 가만히 읊조려 본다. “안녕, 아빠. 어서 주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살펴 주실 거예요.”

주

1. Jack Scholl and M. K. Jerome, “My Little Buckaroo”(1937) 참조.



사라예보에서 홀로 가진 모임

아르민 빌헬름

일요일이면 나는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했다. 다른 회원들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할 것인가?

1999년에 나는 독일군 신분으로, 육 개월 이상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복무했다. 내가 군에서 맡은 임무는 근무 시간도 길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늘 교회에 갈 시간을 냈고, 다양한 교파의 부대원들 750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예배실로 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어느 때처럼 예배실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 교회 회원이었던 다른 장병들이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것이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취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에, 나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라예보에 오기 전에, 나는 독일에서 지부 회장으로 바쁘게 봉사하며 매주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나는 군 장성을 모시고 한 미군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점심 시간에 내가 동료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던 한 미군 장교는 나에게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지를 물어왔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그 지역 교회의 상위 지도자에게 내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고,

곧 피셔 형제라는 분이 내게 연락을 해 왔다. 피셔 형제님은 나와 접견을 한 후, 사라예보 지역의 교회 그룹 지도자로 나를 성별하셨고, 그곳에 그룹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그룹은 군사 시설 내의 교회 조직으로 지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나는 교회 모임 시간을 여러 게시판에 붙이고 초대장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사라예보 군부대에서 다른 후기 성도를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첫 몇 주 동안에는 아무도 모임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나는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했다. 군 복무 중인 교회 지도자와 회원을 위한 교회 지침에 따라, 나는 다른 신권 소유자 없이도 성찬을 축복하고 취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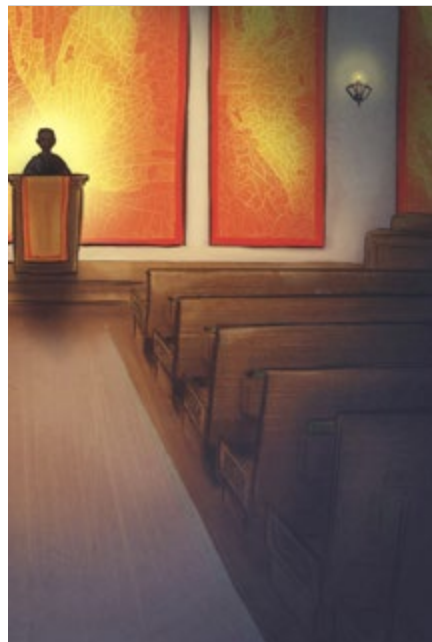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또, 나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혼자서 그 모임을 영어로 진행했다. 내가 처음으로 했던 말씀은 조셉 스미스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예배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신은 그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알려 주었고, 계속해서 나를 강화해 주었다.

그렇게 혼자 모임을 한 지 몇 주 뒤에, 한 젊은 미군 여군이 예배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침례를 받은 회원이었다.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 2주 후에 또다른 여군이 왔고, 그다음에는 두 명의 형제가 찾아왔다. 주님의 도움으로, 교회는 사라예보에서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라예보에는 정식 교회 지부가 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그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나는 그분의 사업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일원이었지만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라는 말씀을 체득하게 해주셨던 것이다.(교리와 성약 64:33) ■

글쓴이는 독일 라인란트팔츠에 산다.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세상에 대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중 한 명으로 일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30,000여 곳의 단위 조직이 있고, 1,6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있으며, 우리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관리합니다. 십이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신권 및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우리 교리의 남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당신의 계명을 적용할 방법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1. 종교의 범세계적 중요성

종교의 자유는 제 평생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54년 전 시카고 대학교에서 젊은 법학 교수로 일하던 시절에 미합중국의 교회와 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편집하여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¹

오늘날에는 정치, 분쟁 해결, 경제 발전, 인도주의적 구호 등의 분야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그 당시보다 훨씬 커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가 있다고는 하나,² 아직도 지구촌 주민의 77%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심하거나 극심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³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와 범세계적인 문제 간의 관계 및 종교와 정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문제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세속주의와 극단주의로부터 위협을 받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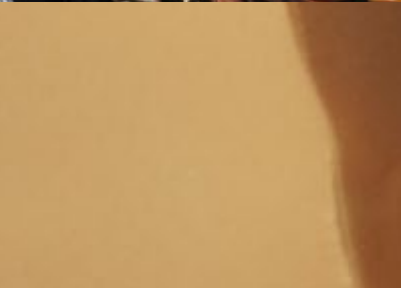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적인 것이지만, 모든 시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정부와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서 그 자유가 구현되는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시민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엔의 영향력 있는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가르침, 의식 및 예배를 진행할 때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또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됩니다.”⁴

이에 상응하여,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종교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의 자유가 확보될 때 종교가

옥스 장로는 2016년 6월 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본 연설을 했다.

종교의 사명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값어치 나갈 은혜로운 빛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일관되게 수용되고 적용된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에 관해 이와 같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것으로 제한하여 종교와 그 신자들을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세계 인권 선언에 보장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에 대한 신념을 행사하고 실천할 자유는 공동체로서 행동할 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 의학 및 문화 분야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2. 종교의 사회적 가치

종교적 믿음과 관행 또한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정부 및 사회가 정한 중요한 목표에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종교가 사회에서 독특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서구 문명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의미있게 진보가 이뤄졌을 때를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적 원리가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여기서 연단의 설교는 이러한 진보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한 무신론자는 최근에 나온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핵심 가치가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종교 신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무신론자 역시 종교의 부패와 약화가 그런 핵심 가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⁶ 그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그 외에 종교의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는 7가지 예입니다

1. 서구 문명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진보가 이뤄졌을 때를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적 원리가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여기서 연단의 설교는 이러한 진보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노예 매매 폐지, 미국의 노예 해방령,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시민 평등권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진보는 세속의 윤리보다는, 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해 분명한 종교적 시야를 지닌 사람들로 인해 그 동기가

왼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데스몬드 투투 신부, 윌리엄 월버포스.

세상은 이 일반적인 원칙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에 대해서 특수하게 이뤄지는 보호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뒤흔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Freedom from Religion*[종교로부터의 자유]나 *Why Tolerate Religion?*[왜 종교에 너그러운가?]와 같은 저서가 그 예입니다.⁵

공적인 상황에서 종교적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교회, 회당, 사원에서만 가르치는

부여되고 진척된 결과였습니다.

2. 미국에서는 자선 사업이라는 거대한 민간 영역, 즉 교육, 병원, 빈민 구제를 비롯하여 큰 가치를 지닌 수많은 자선 활동이 종교 단체 및 종교적 열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주로 이들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서구 사회는 전반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만 유지되지 않으며,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더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에 관한 내적 규범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시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자발적인 자기 규제의 근원은 옳고 그름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오는 책임감입니다. 실제로, 종교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은 서구 국가의 기원과 존속 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삶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상실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정부가 개인 및 민간 조직의 권리를 권력으로써 침해할 때, 종교 단체는 민간단체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제한하는 중재 기관 역할을 합니다.

5. 종교의 신자들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 타인에게 봉사하며,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는 막대한 유익을 얻습니다.

6. 종교는 사회의 구조를 튼실하게 합니다. 랍비인 조너선 섉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는]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공동체 건설자이다. ... 종교는 소비자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이다. 종교 없이도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 앞에서 힘을 잃고 만다.”⁷

7. 끝으로, 사업 경영 및 혁신 분야에서 “선구자적 사상가”로 널리 알려진⁸ 후기 성도인 클레이턴 엠 크리스티슨은 “종교는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라고 한 바 있습니다.⁹ 경제 발전 면에서 종교가 한 긍정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신자들의 행동은 자유롭게 변형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계속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정부에 대한 종교의 책임

지금까지는 종교 단체와 신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에 상응하여 종교와 신자들이 정부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정부가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경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정부는 분명 종교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 대해 증오를 조장하는 가르침을 삼가고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초래할 만한 행동을 금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테러를 조장하는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정부 권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시리아에서 터키로 국경을 넘고 있는 난민들

오늘날 유럽에서는 종교와 정부 간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혹독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난민들이 문화와 종교가 다른 나라로 대거 유입되자, 당연히 정치, 문화, 사회, 재정,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종교 단체는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여 온 국가를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돕기 위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문제에 관한 종교 단체의 역할에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으며, 심지어 종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들에 근거를 둔 이런 의견들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정책과 경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종교 단체가 장단기적으로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 할 긍정적인 영향력이 설명되리라고 믿습니다.

후기 성도 또는 물몬으로 알려진 우리는 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그네에게 피난처를 주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마태복음 25:35 참조)
 저희는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현대의 계시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과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구분짓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교세, 음식, 그 외 다른 호의에 영향받지 않고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고려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유엔이나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교회 조직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우리 교회 나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은 절반이 미국에, 나머지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신자들의 행동은 자유롭게 변형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계속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절반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역량 면에서는 그 숫자가 적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회원들이 가진 봉사의 전통 덕분에 헌신적이고 경험 있는 자원봉사자들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 사업, 인도주의적 사업 및 교회가 후원하는 기타 사업에 2,500만 시간 이상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⁰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한 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교리와 성약 52:40)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은 선택 사항도 부수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56개국에서 177개의 비상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깨끗한 물, 예방 접종, 시력 보호를 비롯한 7가지 영역을 지원하여 백만여 명에게 혜택을 돌리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종교에 바탕을 둔 조직에 대해 제기되는 비난 중 하나를

둘째, 우리는 인도주의적 대의를 위한 회원들의 재정 기부를 매개로 자체 기금을 운용하며 사업을 펼칩니다. 우리는 관료 구조와 예산안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및 유엔 기구와의 협력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종교 단체의 힘에 더 주목할 것을 호소합니다.

셋째, 우리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풀뿌리 조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를 다룬 경우를 보면 그 예가 잘 나타납니다. 2016년 3월,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상호부조회, 청년 및 초등회의 회장들은 전 세계 회원에게 우리 중의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돕는 것에 관한(마태복음 25:35)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모든 연령의 여성은 지역사회의 난민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¹¹

유럽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호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6년 4월 어느 저녁 독일에서는 200명이 넘는 몰몬 회원과 그 친구들이 자원하여 독일 헤센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에 있는 6개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줄 1,061개의 “환영 선물 꾸러미”를 포장했습니다. 이 꾸러미에는 새 옷과 위생용품, 담요 및 미술용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끈 여성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난민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바꿔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들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직한 전 세계적 인도주의 노력의 두 가지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후기 성도 자선회는 영국에 본부를 둔 AMAR 재단과의 완전한 협력

관계를 통해 ISIS의 잔인한 목표가 된 이라크 북부의 야지디 소수 민족을 위해 1차 보건 의료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임상검사실, 응급실, 약국 및 초음파 기기가 모두 갖춰진 이 건강 관리 센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곳에는 문화적인 면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자민족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야지디 전문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동남아시아에서는 엄청난 지진과 그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로 14개국에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이튿날 그곳에 도착하여 5년 동안 활발히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우리 자선회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반다 아체 지역에서만 900개의 상설 가옥과 24개의 마을 급수 시설, 15개의 초등학교, 3개의 의료 센터, 그리고 사원 용도를 겸한 3개의 마을 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코란과 함께 예배용 깔개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상은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의 가치에 관한 몇 가지 본보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첫 번째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종교 공동체에 속한 채 단지 종교의 가치만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자유를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

영어로 된 이 연설의 전문과 동영상을 보려면 mormonnewsroom.org를 방문한다.



영국 런던에서 AMAR 의장이자 설립자인 엠마 니콜슨 남작 부인과 함께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주

1. *The Wall between Church and State*, ed. Dallin H. Oaks (1963) 참조.
2. Pew Research Center,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Major Religious Groups as of 2010,” Dec. 2012, 9, 24, pewforum.org 참조.
3. Pew Research Center, “Latest Trends in Religious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Feb. 26, 2015, 4, pewforum.org 참조.
4.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 un.org. 종교적 관행 보호를 위한 이 일련의 것들은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c. 16, 1966, Article 18;
5. Amos N. Guiora, *Freedom from Religio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2009) and Brian Leiter, *Why Tolerate Religion?* (2012).
6. Melanie Phillips,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The Global Battle over God, Truth, and Power* (2010), xviii.
7. Jonathan Sacks, “The Moral Animal,” *New York Times*, Dec. 23, 2012, nytimes.com.
8. Jena McGregor, “The World’s Most Influential Management Thinker?” *Washington Post*, Nov. 12, 2013, washingtonpost.com.
9. Clayton Christensen, “Religion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Prosperity,” Feb. 8, 2011, mormonperspectives.com.
10. 이 숫자는 선교사들이 교회 봉사에 들인 약 1,400만 시간과 복지 및 인도주의 활동가가 들인 약 8백만 시간, 그리고 와드의 복지 사업에 들인 약 4백만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11. 2016년 3월 26일 자 제일회장단 서신, 2016년 3월 26일 자 본부 상호부조회, 청년 및 초등회 회장 서신 참조.



우리는 니콜라이에게 복음의 원리를 언급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원리들을 실천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해 전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노점상을 꾸리던 시절에 나는 니콜라이 샤베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우크라이나 체르니고프 출신으로, 서로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금세 친구가 되었다.

나는 이야기 끝에 니콜라이가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나는 그에게 우리 집에서 지낼 것을 권했다. 우리는 그다지 따뜻하지도 안락하지도 않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남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한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가계도구를 파는 대부분의 노점 상인이 그렇듯, 우리도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야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아내와 나는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니콜라이가 우리는 왜 일요일은 온종일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는지를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요일은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네. 다른 목적을 위해 마련된 날이지.”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식비와 집세를 감당한다 말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러 가 보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니콜라이가 교회에 대해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는 곧바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생업을 제쳐 두고 교회 모임에 가는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일요일의 참된 목적

알렉세이 체메조프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심심찮게 우리가 믿는 바를 그에게 이야기했고, 그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 보게, 자네도 알게 될 걸세

니콜라이는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바를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받는 축복도 보았다. 그렇다. 우리는 넉넉하게 생계를 꾸릴 만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항상 딱 필요한 만큼 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이 커졌고, 니콜라이에게 더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권유했다. “해 보게, 자네도 알게 될 걸세!”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

일을 하러 가는 대신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간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6일만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에서 소망과 축복을 보았기에 우리처럼 해 보았다.

니콜라이는 그 주에 번 돈을 세어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서 벌던 것보다 많은 액수를 벌었던 것이다!

십일조도 내 보게

십일조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 니콜라이는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의 10%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난 절대 그만한 돈이 생기지 않을 걸세!”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해 보면 알게 될 걸세.”

그런데 미심쩍어하던 니콜라이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이것도 일요일에 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지? 십일조를 내면 필요한 만큼 돈이 생긴다는 거로군.”

이것은 니콜라이에게 큰 계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은 우리의 위익을 위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터득했다.

고향 체르니고프로 돌아간 니콜라이는 선교사를 초대하여 자신과 가족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곧 그는 가족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후에 니콜라이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의 딸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우리는 니콜라이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그에게 복음의 원리를 언급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원리들을 실천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결국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간증을 얻었으며 새로운 삶을 얻었다.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

글쓴이는 우크라이나 리비프에 산다.



와서 보라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어 보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된지 스스로 알 수 있게 공부하고 숙고하며 기도하고 알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여러분이 이미 참되다 믿는 바를 더 폭넓게 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지 한번 와서 보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와서 보라”,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107쪽.





성약을 되찾다

나는 파문으로 인해 성약을 잃은 후,
성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익명

나는 교회에서 성장하여 여덟 살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나와 내 주변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생활에 성신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친숙한 일이었다.

그런데 파문을 당하자, 몸으로 느끼던 어떤 분명한 느낌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고 과정이 교란되고 둔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음이 불안했고 평안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회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더는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도, 성전 의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십일조를 내거나 부름을 받아 봉사할 수도 없었고, 성찬을 들지도 못했으며,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거나 기도할 수도 없었다. 이제는 성신의 은사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침례와 성전 의식을 통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당시 우리 아이들은 열여섯, 열넷, 열두 살이었다. 나는 나의 유산인 아이들에게 소망이라는 유산을 남겨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아이들을 얹혀 놓고, 혹시 내가 다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나를 위해 대리 의식을 해 달라고 일렀다. 이제부터는 침례 성약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다시는 깨끗하게 씻기지 못할 상황이 될까 염려스러웠다.

되돌아오는 길

나는 교회가 참되고, 복음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한 일을 뉘우치고 있음을 그분께서 아시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매주 교회에 나갔다. 워드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불편해했고, 내게 말을 걸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운 증후군이 있는 특별한 청년 할리는 나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 매주 일요일 내가 예배당에 걸어 들어가면, 할리는 내게 달려와서 팔을 벌려 안아 주며 이렇게 말했다. “만나서 정말 기뻐요! 사랑해요!” 마치 내가 교회에 와서 구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할리가 구주 대신 알려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찬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찬이 나를 지나쳐 전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었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성찬을 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구주의 권능과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고, 죄와 부족함을 매주 용서받는다든 것, 또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과 충실함을 담아서 이미 맺었던 성약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에, 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십일조를 저축해 두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십일조를 받을 수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십일조를 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은 주님께 알려 드리고 싶었다. 그 당시 나는 혼자서 십 대 딸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비록 실제로 낼 수는 없더라도 기꺼이 십일조를 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드리는 축복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크나큰 축복을 받았음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축복이 회복되다

파문된 지 일 년이 조금 지나서 나는 다시 침례를 받았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옹호해 주시며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다시 예수님과 성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 마음속 깊이 감사드렸다.

성신의 은사도 다시 받았다. 다시 한 번 온몸으로 성신의 존재를 느꼈다. 내 소중한 친구가 돌아와 다시 나와 함께하게 된 것이다! 다시는 그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싶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도 되도록 말이다.

나는 십일조가 든 통장을 해지하고 수표를 적어서 들뜬 마음으로 감독님께 드렸다.

그리고 오 년이 지난 후에는 성전 축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큰 안도와 감사를 느꼈다. 나는 다시 한 번 큰 사랑을 느끼며 성전에서 맺은 성약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인봉되어 있다. 우리는 이 인봉이 영원히 지속될 성약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다.

죄책감이라는 멍에

그 후 20년 동안, 깊은 죄책감이 밀려오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불행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회개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용서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엘마서 36장 12~13절에서 엘마 이세가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내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음이라.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어느 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시여, 제 회개가 충분하였나이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까.” 그런 후 나는 마음을 다해 귀를 열고 응답을 기다렸다.

응답은 매우 명확하게 찾아왔다. “너는 충분히 회개하였느니라.” 순수한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이 밀려왔다. 한없이 미소가 번지면서 행복한 마음에 설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날 나는 온종일 기쁨에 들떠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한 번 엘마 이세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다.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찼느니라.(엘마서 36:19~20)

교회 회원 자격을 되찾고 구주와 성약을 맺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간 걸어온 길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이러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파문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힘을 찾기까지는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경험에 힘입어 변화하려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또한 변화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재함을 의심 없이 간증할 수 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 삶을 더 훌륭하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교회의 회원이라서 정말 감사하다.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삶의 크나큰 축복이다. 이제 다시는 회원 자격을 잃지 않으리라. ■



더 큰 행복에 이르는 길

“영생의 은사를 상속받는 여정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이에게 더 큰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 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쪽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유산을 남기는 것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참으로 값진, 소망의 유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2쪽.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첫번째 시현

진리로 이끄는 열쇠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서 배운 여러 소중한 진리를
부디 잊어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유 사 이래 선지자들은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리라고 예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그리고 몰몬경에는 복음의 회복을 분명하게 예측하고 가리키는 예언적인 언급이 수십 군데에 나옵니다.¹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단다]” 꿈을 꾸지 약 2,400년 후인 1790년대 후반(다니엘 2:44), 미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일련의 종교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은 역사가들에게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가족이 종교적으로 헌신할 방법과 장소를

찾아다니게 된 것은 이런 부흥 모임에서 나오는, 구원에 관한 상충되는 개념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셉은 부친의 가르침과 의견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조셉의 부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구성된 고대의 교회처럼 조직된 교회를 찾았으나 부흥 종파 중에서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면, 조셉은 내용을 귀담아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자, 그는 자신의 죄와 불멸하는 영혼의 복리를 걱정하여 스스로 경전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셉은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대한 다양한 기록들은 물론 주안점과 세부 사항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한결같다. 역사가들은 한 사람이 수년간 여러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이야기할 때마다 그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며 고유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바울의 시현과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경험에 관한 여러 경전 기록들에도 첫번째 시현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기록들 사이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시현에 관한 모든 기록 전반에는 기본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조작의 증거라고 그릇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풍성한 역사적 기록들은 잘 기록되지 못했더라면 알지 못했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준다.”²

1832년 기록

첫째, 1832년 기록은 첫번째 시현이 상세하게 담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 그 내용 대부분은 조셉이 직접 쓴 여섯 쪽짜리 자서전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 기록은 작성된 이래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의 서부 이동 이후, 이 기록은 여러 해 동안 보관함에 포장된 채 남아 있었고, 1965년에 한 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에 수록된 후에야 비로소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기록은 LDS.org와 조셉 스미스 문서 등에서 여러 번 출판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조셉은 어디에서 구주의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을 열어 주셨으며 나는 주님을 보았다.”³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을 두고 조셉이 단 한 분의 거룩한 존재의 출현을 언급한 것으로

조셉 스미스는 경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13; 또한 야고보서 1:15 참조)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이로써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가지 기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기록 또는 구술로, 첫번째 시현에 관해 네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에 더하여, 조셉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시현에 관해 조셉에게서 들은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기록해서, 첫번째 시현에 대한 기사는 총 다섯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기록들 덕분에, 조셉의 첫번째 시현은 역사상 가장 잘 문서화된 시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history.lds.org를 방문하여, 그 기록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이 기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 주는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주제 글인 “첫번째 시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시현에

해석했으나, 다른 문서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셉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구주의 속죄와 구주께서 조셉에게 베푸시는 개인적인 구속이 아름답게 강조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조셉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 나는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조셉은 기쁨과 사랑을 체험했으나 시현을 믿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에도 하늘의 시현을 믿으려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일을 마음속으로 깊이 상고했다.”⁴

1835년 기록

다음으로, 1835년 기록은 조셉이 1835년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방문한 로버트 매튜에게 시현을 설명했을 때 서기가 그 내용을 조셉의 일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조셉의 역사에 관한 초창기 판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1960년대에 처음으로 *BYU Studies*에 출판되었습니다. 조셉은 이 기록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구주를 보았다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내 머리 바로 위에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불기둥은 이내 내 앞에 내려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불기둥 한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셨고, 불기둥이 주변 가득 퍼졌는데도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처럼 다른 한 분이 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울러 조셉은 이 기록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이 시현에서 여러 명의 천사를 보았다.”⁵

1838년 기록

1838년 기록은 가장 잘 알려진 기록으로, 조셉의 필사본 역사 기록에 수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 원고는 조셉이 1838년 초에 커틀랜드를 떠난 후 썼으며, 두 번째 원고는 1839년에 미주리에서 탈출한 직후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반대가 극심했던 시기에 쓰였고, 1842년, 일리노이 주 나부 소재의 교회 신문이었던 *Times and Seasons*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또한 1851년에 값진 진주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원래 영국 성도들을 위한 소책자였다가 그 후 1880년에 모든 성도를 위한 정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관한 다수의 원고가 조셉 스미스 문서로 출판되었습니다. 1835년 기록처럼,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은 어느 교회가 옳은가였습니다. 이 기록은 비단 조셉의 역사만이 아닌 교회의 역사로, “교회의 일어남과 발전의 출발점으로서의 시현을 조망”했습니다.⁶ 따라서 여기에는 앞의 두 기록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용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842년 기록

마지막으로 1842년 기록은 *Chicago Democrat*의 편집인인 존 웬트워스의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조셉은 신앙개조와 더불어 첫번째 시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서한을 그에게 썼습니다. 이 서한은 1842년 *Times and Seasons*에 출판되었습니다. 1843년, 이 기록은 역사가인 이스라엘 대니얼 럽이 조셉의 허락을 받아 미국 내 기독교 종파를 다룬 그의 저서에 다시금 수록되었습니다.⁷ 이 기록은 물문의 믿음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지자가 직면했던 반대가 다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쓰인 것입니다.

조셉은 다른 기록에서처럼 자신이 겪은 혼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신, 영광을 지닌 두 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시현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영광스러운 두 분을 보았으며, 두 분의 모습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모든 교파가 다 그러며 어떠한 교파도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충만한 복음이 저에게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⁸

조셉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약전서의 각 복음서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을 더욱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조셉의 첫번째 시현을 설명해 주는 각각의 기록은 전체 내용에 독특한 세부 내용과 시각을 더해 줍니다. 이 기록들은 함께 일관되고 일치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있었고, 조셉은 만일 참된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알고자 경전을 탐구하고 기도했으며,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거룩한 분들이 나타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경전에 실린 첫번째 시현에 관한 1838년도판 조셉 스미스의 기록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경험은 조셉의 삶을, 또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었고, 혹여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 진실성을 주님께 나아가 확인해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LDS.org에 나오는 “첫번째 시현 기록”이라는 글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시현을 경험했다고 거듭 간증했다. 첫번째 시현에 대한 진실도, 또 그것에 대한 반론도 역사적 연구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다.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참된지 알아보려면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각 사람이 그 기록을 연구한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신앙을 행사하여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그 기록이 참된지 여쭙어야 한다. 그 사람이 성신이 계시해 주시는 응답에 따라 행하겠다는 진정한 의도로 간구한다면, 조셉 스미스의 시현이 참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선언한 조셉 스미스가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시현을 보았[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에 따르면,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⁹

첫번째 시현에서 얻은 진리

이 성스럽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놀랍고도 깨우침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사탄의 실재, 선과 악 사이의 투쟁, 그리고 위대한 구원 계획의 다른 중요한 면에

관해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경전은 참되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경전을 상고하면 힘과 통찰력이 생긴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아는 바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응답된다.

사탄은 실재하는 존재이며, 우리를 비롯하여 육적인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조셉이 배운 것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의] 그 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든 짧았든 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제까지의 박식한 모든 신학자들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영감을 주는 생각”,
성도의 빛, 1997년 8월호, 5쪽.

사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종속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고자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며, 그는 회복의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빈틈없는 신앙과 신뢰를 주님께 뉘으로써 사탄을 극복할 수 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특징과 외양 면에서 서로 닮은 별개의 두 인격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 사항과 걱정을 알고 계시다. 그분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며,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곳 지상에 있는 인간과 소통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다.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조직하신 것과 같은, 그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없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배도가 실재했음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그분은 우리가 정련되는 길을 알려 주실 것이다. 조셉의 시대에는 모든 교회와 종파가 옳지 않았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시현과 축복 및 영광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시는 방법에 관한

식견을 얻는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고 의로우며, 그분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가진 자를 택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나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에 바탕을 두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해 준다.(사무엘상 16:7 참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수 세기 동안 감추어진 여러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번째 시현에서 배운 여러 소중한 진리를 부디 잊어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다. ■

2016년 5월 1일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네클에서 열렸던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말씀 “회복된 진리”에서 발췌함. 말씀 전문가 영상 보려면 lds.org/broadcasts 를 방문한다. 첫번째 시현에 대한 네 가지 기사의 전문은 history.lds.org/firstvision 에서 볼 수 있다.

주

1. 예를 들어, 신명기 4:27~31; 이사야 60~62; 에레미야 30~33; 에스겔 37:15~28; 아모스 9:11; 말라기 3:1; 마태복음 17:11; 마가복음 9:12; 사도행전 3:19~21; 로마서 11:25~27; 에베소서 1:9~10; 데살로니가후서 2:1~3; 요한계시록 14:6; 니파이전서 13:34~42; 니파이후서 26:14~17; 야곱서 6:1~4; 제3니파이 21장 참조.
2.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3. Joseph Smith, in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2012), 12–13; spelling,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see also Dean C. Jessee, “The Earliest Documented Accounts of Joseph Smith’s First Vision,” in John W. Welch and Erick B. Carlson, eds., *Opening the Heavens: Accounts of Divine Manifestations, 1820–1844* (2005), 1–34; “First Vision Accounts,” *Gospel Topics*, topics.lds.org.
4. Joseph Smith,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12–13; spelling,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또한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참조.
5. See Joseph Smith, in *Journals, Volume 1: 1832–1839*, vol. 1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2008), 88; spelling,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또한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참조.
6.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7. See I. Daniel Rupp, *He Pasa Ekklesia: An Original History of the Religious Denominations at Present Existing in the United States* (1844), 404–10.
8.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494; 또한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4쪽.



충실한 고등평의원

나는 독일에서 한 충실한 대제사를 통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린다는 것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도널드 에이 코우

20 08년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 방송을 보던 중이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에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무거운 피아노를 옮긴 경험을 들려주셨다. 어떻게 해도 피아노가 꿈쩍하지 않자, 그중 한 사람이 모두에게 서로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려 보자고 했다.¹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부름을 막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부름을 받는다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낮은 부름이란 없습니다. 모든 부름은 봉사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²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기꺼이 실천한 어떤 교회 회원과의 만남이 떠올랐다.

1985년, 나는 미국 육군 장교로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십 년 전에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나는 군인이 되어 1983년에 아내 데브라와 두 딸을 데리고 독일에 갔고, 바로 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군인 지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 년 후, 우리는 독일의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하고자 열두 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는 작은 바트 크로이츠나흐 지부에 참석하기로 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지부에 참석하던 날,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형제 하나가 눈에 띄었다. 40대 중반의 이 형제는 우리 지부로 지명을 받은 고등평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스테이크 행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지부를 방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교회가 끝나고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면서, 나는 육 개월 후에나 그를 다시 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다음 주에도 나는 그 고등평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형제는 우리 동네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산다고 했다. 그는 고등평의원에서 해임될 때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우리 지부에 참석했다. 그는 친절하고, 겸손하며, 기운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지부 회원 한명 한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연단에서 말씀을 해야 하는 때도 많았다. 그의 헌신에 감명을 받아,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충실한 고등평의원’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어느 일요일에는 그가 오전에 우리 지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저녁 여섯 시에 다시 왔는데, 침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사이에는 다른 지부를 방문하고서 말이다.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저 형제가 뭘 어쩔길래 저렇게 스테이크 회장의 미움을 산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스테이크에서 가장 작고 멀리 떨어진 지부에 부름을 받은 걸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 형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적이고 겸손하며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면, 자기 와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름을 구실 삼아 그 와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결국, 나는 정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침례식 후 몇 주 뒤, 일요일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 근처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데 세 시간 반이 걸린 것이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을 무렵,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내 데브라는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충실한 고등평의원’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했다. 그 형제가 나와 만나고 싶어 했다고 했다. 나는 “교회 가기 전예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요?”라고 물었다. 교회는 아침 열 시에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여덟시 반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교회가 끝난 후에 그를 만났으면 했다.

“전예요.”하고 아내가 대답했다.

“아침 아홉시 반?”

“아니요. 스테이크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가야 하신대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분의 사무실로 왔으면 하더라고요. 5번 출입구로 와 달라고 했어요.”

“몇 시예요?” 내가 물었다.

“아침 여섯 시요.” 아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화가 났다. 벌써 새벽 열두 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여섯 시까지 그리로 가려면 적어도 네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다. 네 시간도 채 잠을 잘 수 없다는 뜻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심지어 그 형제의 전화번호도 몰라서, 못 간다고 아침에 전화할 수도 없었다. 나는 침대 옆에 옷을 던져 놓고 자명종도 맞추지 않은 채 누워 버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 갔다.

만일 내가 ‘충실한 고등평의원’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의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는 분명 다른 일을 하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그를 만나서 내가 그날 나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실 걸 알았더라면 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못한 이야기는 지금 하도록 하죠.” 게다가, 나는 그 지부의 진짜 회원도 아니었다. 물론, 우리의 회원 기록이 그 지부에 있고 우리가 매주 참석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 독일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대여섯 달 후면 그곳을 떠날 예정이었다.

양심의 가책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몇 분이 더 흘렀고,



나는 알람을 네시 반으로 맞추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충실한 고등평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대로 잠이 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그에게 지어 준 별명이 생각났다. 그리고 우리가 온 후로 그 ‘충실한 고등평의원’이 우리 지부를 방문했던 일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는 일요일 늦은 저녁 침례식에도 왔었다. 주중에 있었던 지부 활동에도 참석했다. 그는 항상 모든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회원들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지부 회장과 지부 회장의 노력을 존중했다. 이 작은 지부에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르나,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명종 시계가 놓인 옷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알람을 네시 반으로 맞추었다. ‘충실한 고등평의원’과 만나겠다고 결심하면서,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우리가 이사를 하면 그를 다시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들을 일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네 시간 후에 일어나 그의 사무실까지 80킬로미터를 운전해 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충실한 고등평의원’인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했다. 그는 최근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은 상태였다. 그는 데브라에게 조심스럽게 건강이 어떤지를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효과적인 질문들을 통해 우리 가족의 실제 상황에 대해 데브라에게 확실한 대답을 얻어 냈다. 그는 결국, “자매님은

나는 그 일요일 오전 여섯 시, 5번 출입구에 차를 세웠다.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 경비원은 내 차의 미군 변호관을 응시했다.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충실한 고등평의원은 오지 않기로 한 걸까? 하지만 곧 그의 자동차가 내 차 옆에 멈춰 섰다. 그는 “좋은 아침이에요, 돈. 제 사무실로 가시죠.”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문을 열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다.

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구경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는 우리가 만나게 된 용건을 꺼냈다. 그는 나에게 지부 회장단 보좌라는 부름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1보좌나 2보좌가 아닌, 그냥 보좌였다. 내가 그 지부에 나가기 전에 그 지부에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가 두 명밖에 없었고, 두 사람이 몇 년마다 번갈아가며 지부 회장과 장로 정원회 회장을 맡아 왔던 것이다.

나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 석 달 동안 봉사한 후에 두 달간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내가 없는 동안 아내와 어린 아들이 둘 다 몸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 부대에서 97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군인의 씩씩한 아내인 데브라는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나에게 독일로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었다. 사실, 나는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아내가 왜 아프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번은 아내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내가 혼자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의사가 아내를 직접 집으로 데려다준 일도 있었다. 지부 회장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아내는 정중히 도움을 거절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데브라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충실한 고등평의원이’ 데브라에게 전화를

지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부 회원들은 자매님을 정말로 돕고 싶어 합니다. 자매님을 도우면서 지부는 하나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그 지부에서 두 달을 더 머무른 후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갔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음성애 다시 집중하고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그 시절에 대한 내 기억은 점차 사라져 갔다. 나는 그분의 메시지가 함축하는 바에 진정으로 감명을 받았다. (직장과 군대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느꼈던 경험도 있었지만, 그와 달리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메시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역량 덕분에 독일에서의 ‘충실한 고등평의원에’ 얽힌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바로 그 ‘충실한 고등평의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른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만났던 공업 단지는 그분이 기장으로 근무하던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이 있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었던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분보다 더 겸손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그분보다 더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이다. 나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십시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주

1.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3쪽.
2.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56쪽.

미카엘은 의료인이자 과학자이다. 그의 의학적 전문 분야는 신경종양학이며, 그는 분자 생물학 박사다.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다나 파버(Dana-Farber) 암연구소에서 뇌종양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미카엘 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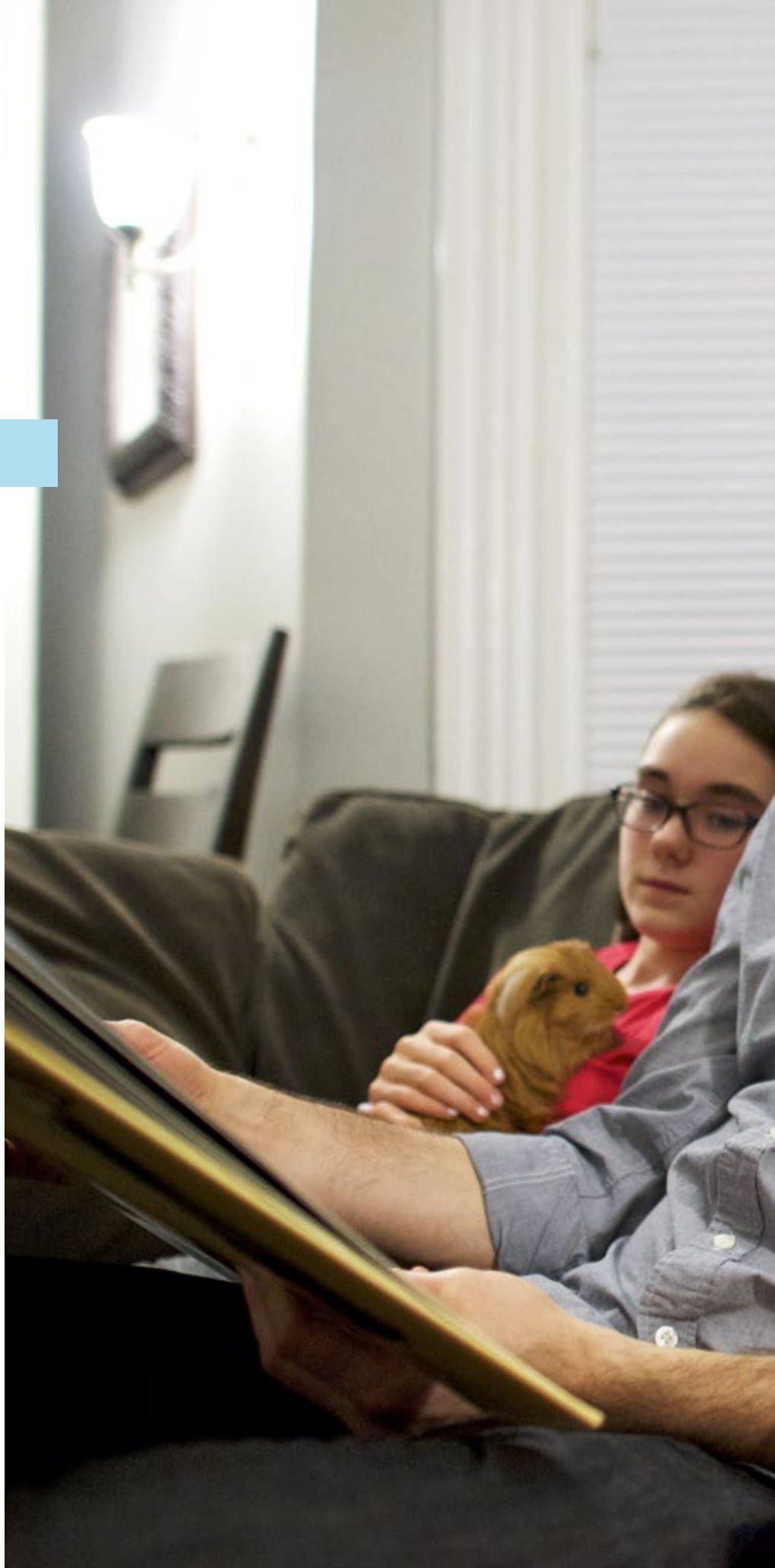
미국 매사추세츠주

신앙과 과학은 서로 모순된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모든 현상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든 다 밝혀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신앙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신앙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감독인 제가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원들이 저를 통해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리아호나 온라인 버전을 보기 위해 lds.org/go/61736을 방문한다.

2016년 7월호 리아호나에서 “과학, 그리고 진리를 향한 탐구”라는 기사를 살펴보려면 lds.org/go/49m을 방문한다.







우리 가족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 힘을 보태 주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교회 청소와 복음 나누기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나와 며칠을 보내려고 아마조나스에서 라과히라까지 온 터였다. 햇살은 눈부시고 바닷바람도 최고였다. 여동생들의 들뜬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서고 보니, 그날 내가 교회 청소 당번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족과 바닷가로 갈 것인가? 일단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한 번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청소가 끝나면 바로 바닷가로 가기로 하고 말이다.

교회에 들어서자, 나는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청소는 네 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가족들의 지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가족들한테 각 방과 그림, 침례탕도 보여 주었다.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가족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 힘을 보태 주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교회에 있는 동안 내 십대 여동생 탈리아와 히네스카는 찬송가도 몇 곡 배우고 교회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일요일이 되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했다. 와드 회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내 동생들을 반겨 주었다. 우리 가족은 자매 선교사들도 만났는데, 바로 다음 날 선교사들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기도 했다. 우리는 가정의 밤도 열었고, 나는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 주었다. 우리는 자주 함께 기도했다. 같이 찬송가도 듣고 교회 동영상도 봤다.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성전과 그 안의 정원을 보여 주려고 동생들을 카라카스에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이 주는 축복에 대해 간증을 나누고 아마조나스로 돌아가면 교회를 찾아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그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연락했다. 그 와드의 선교사들과 와드 평의회 일원들은 우리 가족을 방문했고, 우리 가족이 개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힘이 되어 주었다. 여동생들은 아버지한테서 침례 허락을 받게 해 달라고 자주 기도했다.

마침내 나는 충만한 감사와 벅찬 기쁨을 안고 탈리아와 히네스카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아마조나스로 향했다. 동생들의 반짝이는 눈에는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다. 우리 가족은 교회 청소라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지고 굳건해졌다. 나도, 그리고 내 동생들도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

아르만도 코르세가, 베네수엘라 라과히라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보살핌

나는 프레첼 과자, 시리얼, 팝콘, 감자 칩 조각들을 한 무더기로 쓸어 모았다.

“아니 내가 먹은 건 이 중에서 하나도 없어.” 내가 쓰레받기에 음식 부스러기를 쓸어담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치르는 희생이지요.” 식탁에 앉아 있던 남편이 조용히 대꾸했다.

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물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계속하는 사이사이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들은 자신과 무관하게 어질러진 일들을 정리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죠. 그건 마치 구주께서 하신 일과 같아요.”

상당히 심오한 관찰이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과는 달리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모으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닮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질 법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죄책감이 밀려왔다. 주님께서 하신 일과 비교를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다. 그동안 나는 인정받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자주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 온 일들을 시시콜콜 남편과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 왔던가? 내 아이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상을 깨닫고 보니 아이들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보다 내가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한 번도 칭찬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칭찬을 부탁하거나 원하신 적이 없으셨다.

나는 내 십 대 자녀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기억하는데,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모면해 보려고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모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려고 했다.

나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그동안 했던 일들 목록을 엄마와 비교해 보자꾸나. 하지만 너희가 질 게 뻔하니, 군말 없이 도와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보니 내 의도와 동기도 남편이 비교한 대상과 견줄 만큼 순수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구주께서는 결코 그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과 비교하려는 어떠한 목록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 내가 매번 질 테니 말이다.

빗자루를 손에 여전히 쥔 채, 나는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다. 바로 그분께서 하셨을 방식으로 보살피는 것이었다. 칭찬과 인정,

포옹이나 고맙다는 말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치울 것이다. 그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셨을 테니 말이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며 우리가 어지른 것을 치워 주신다. 나는 이제 가능한 한 가장 순수한 사랑을 품고 내 아이들을 힘써 가르치고 돕겠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레이철 희선, 미국 애리조나 주

“그게 바로 어머니가 치르는 희생이지요.” 식탁에 앉아 있던 남편이 조용히 대꾸했다.





야트막한 담장의 주택가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담장 너머를 살펴보니 한 중년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낮선 이에게 준 축복

가 족과 함께 침례를 받고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첫 지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화창한 날, 동반자와 나는 평소처럼 전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번잡한 거리를 지날 무렵, 야트막한 담장의 주택가에서 희미하게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담장 너머를 살펴보니 중년 남자가 출입구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들어와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출입구는 잠겨 있었는데, 그렇다고 담을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퍼뜩 출입구의 자물쇠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분의 시도 끝에 밖에서 자물쇠를 제거하고 출입구를 열 수 있었다. 그는 도움받을 테도 없이 홀로 병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지병이 있었는데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겨우 걸음을 옮기는 그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는 그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나는 목에 무언가가 걸리더라도 한 듯, 한 마디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몸이 떨리고 땀이 나면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자,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뜻대로 내 혀를 풀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오는 말은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 중에 있는 이분을 낫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 음성을 나도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남자는 잠이 들어 버렸다. 우리는 일단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러 그의 상태를 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우리에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다고요!” 나는 기쁨에 벅찬 나머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어 성찬식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연단에 계시던 감독님이 갑자기 멈칫하시며 예배당 문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축복을 추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를 알고 있었던 감독님은 그가 교회로 들어서자 놀라워하셨다. 그 남자는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성찬식 모임과 다른 공과 시간에 참석했다. 나중에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갔다.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기적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합당하게 여기신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다. 치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남자였지만, 간증과 기쁨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 스탠리 올레이, 나이지리아 라고스

직장에서 얻은 금식의 축복

나는 모잠비크에서 충실하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부분의 귀환 선교사들처럼 바로 공부와 일을 시작했다.

나는 파라과이 국경과 접한 브라질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파라과이의 대형 슈퍼마켓에 공급할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영어를 배운 축복 덕에 얻은 자리였다. 이즈음, 나는 결혼하여 딸을 얻는 축복도 받았다.

그런데 브라질의 금융 위기가 통화 부족 사태로 이어지자, 우리 회사에도 바로 그 영향이 미쳤다. 내가 정기적으로 수입하던 상품의 판매가 줄어 버린 것이다. 다음 해 2월 말이 되자, 실제로 나는 할 일이 없었다. 다른 동료들처럼

직장을 잃을 것은 거의 볼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먹여 살릴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나는 심지어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 주자, 아내는 금식을 해 보자고 했다. 금식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다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직장에서 관리자가 나를 불렀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일자리를 잃는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관리자는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했다. 보통은 변호사에게 법률 문서의 번역을 맡기는데,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니 그 번역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내가 잘 해내면 그 일은 내가

맡게 될 테고, 그러면 부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곧바로 문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번역을 잘 마무리하여 관리자에게 보여 주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 남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이 될 뻔했던 급여를 받으러 가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월급이 인상된 것이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며 금식이 하늘의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

카를로스 알베르투 파임 콰드로스,
브라질 폰타포랑

나는 금식이 하늘의 문을 열어 준다는 것을 안다.

자립과 복음 학습

데이비드 비 마쉬
교회 신권 및 가족부

한 유치원 교사가 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들을 관찰해 보았다. 교사는 아이들의 그림을 둘러보다가 그중 한 꼬마 소녀에게 물었다. “뭘 그리고 있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다소 놀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자 소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다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바를 확신하길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힘,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 깨닫는 것이라.”(예레미야 9:23~24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제게 밝혀 주신 것은 모두 십이사도에게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성도라도 [그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 모든 것을 속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웃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확신하려면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부모나 교사가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일에서 자립해야 한다.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음식 먹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영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몇 해 전, 미국 플로리다 주의 세인트오거스틴에서 갈매기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 갈매기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새우잡이 배의 그물에서 던져 주는 먹이에 의존하는 법을



**복음을 배우는
일에서 자립을 이루면,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알게 된다.**







터득했다. 그런데 결국 새우잡이들은 그 지역을 떠났고,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갈매기들은 새끼들에게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결국, 이 크고 아름다운 새들은 주변의 물속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굶어 죽고 말았다.²

우리는 그 갈매기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 채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언제나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립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³ 복음을 배우는 일에서 자립을 이루면,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알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영적인 자립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만약 그것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계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이든 너무 빨리 답해 주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게 온갖 방법을 다 제공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할 것입니다.”⁴

우리는 교회에서도 배움과 영감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지만, 그것에만 의지해서 영적인 양분을 얻을 수는 없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보조 조직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우리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고에 너무 의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르도록 보존된, 온전히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조언과 권고를 담은 성스러운 기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성스러운 기록에 담긴 내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⁵

나는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복음에 관해 영감 어린 통찰력을 얻을 때 더 기쁘다. 경전에서 진리의 작은 보화를 찾아 이해를 밝히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것보다 더 설레는 일은 없다.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다

나는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뒤, 영성을 유지하려면 거의 매주 노년의 모임과 영적 모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연사들로부터 복음에 관한 통찰을 얻었고, 그런 방식으로 받은 통찰력으로 내가 느끼는 것들에 감사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하며 2년 동안이나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나는 규칙적으로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갖추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경전만 읽었을 뿐, 부지런히 찾으려 하지는 않았다.

복음 공부하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누구라도 한눈에 쳐 보면 알 수 있는 일도, 타고나는 일도 아니다. 누군가에게 물감 짠 팔레트를 주고서 그 사람이 바로 화가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똑같다. 기본적인 복음 연구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훌륭한 통찰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경전에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 곧 영원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고들어 찾아보아도 실망스러울 것입니다.”⁶

내가 처음으로 경전을 연구하며 의미와 지침을 찾으려고 했을 때 실망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연사들이 어떻게 통찰력을 얻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는 그들이 경전에서 특정한 교리 문장을 끌어내고, 성구에서 구주에 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찾아내며, 삶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만들어 내고, 상징을 해석하며,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을 특정한 경전 구절과 연결 짓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

경전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이며, 그 교리에 대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이 복음 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을 본 것은 언제 어디서였는가?
-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가?
-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받은 영감





어린 생각과 느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가?
- 나는 여기서 내 하루하루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배웠는가?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교사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자, 가르치는 방법도 바뀌었다. 나는 경전이 나한테 의미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인도해 줄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⁷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다. 가르치면서 경험한 가장 흐뭇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러한 기술과 질문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자, 그들은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역량이 놀랍게 성장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배움은 가르침보다 우선하며, 잘 배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누구나 원할 만한 정말 장엄한 축복 아닌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는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는 학생에 대해서보다 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와 절차는 모두 영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될 미래가 더욱 혼란하고 거친 세상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때, 저는 우리가 모두 신앙으로 배움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신앙으로 배우고 영적인 진리를 적용해야 할 책임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세상에서 더욱 커질 심각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배우는 내용, 방법, 시기는 교사와 발표 방법, 혹은 특정 주제나 공과 형태의 도움을 받지만, 그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⁸

자립하여 배울 때 주어지는 축복

우리는 확실히 부모와 교회 교사들에게서 영감에 찬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받지만, 아마도 스스로 영감을 얻고자 배우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힘이 커진다.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공부를 위한 장려책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 다음에도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라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는 21세기 사회에 널리 퍼진 궤변의 맹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 중 적어도 하나는 주로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같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조셉 스미스-마태 1:3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경전 공부를 한다면, 유혹을 피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⁹

복음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서 자립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한복음 7:37~38)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지만, 내가 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자립하여 복음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내 삶은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68쪽.
2. “Fable of the Gullible Gull,” *Reader’s Digest*, Oct. 1950, 32 참조.
3. 메리온 지 롬니, “자립심-혜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성품”,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45쪽.
4. Boyd K. Packer, “Little Children,” *Ensign*, Nov. 1975, 87.
5. George Albert Smith, in Conference Report, Apr. 1929, 30; see also *The Teachings of George Albert Smith*, eds. Robert and Susan McIntosh (1996), 53.
6. 보이드 케이 팩커, “선택 의지와 통제”,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102쪽.
7.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in Conference Report, Oct. 1936, 3)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야호나*, 2007년 9월호, 17, 20, 21쪽 참조.
9. 토마스 에스 몬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68쪽.



주님의 병사

에녹 알 베르데 레예스

나는 오래전에 멕시코 몬테레이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다.

선교 사업을 시작할 무렵, 나는 한 가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군 복무를 마쳤다는 확인 서류를 아직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그 서류는 서류의 주인인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마쳤으므로 이제 일하고 공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 서류가 있어야 멕시코의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서류가 발행될 날짜가 다가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내 군 복무 입증 서류를 대신 받아다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 보았다. 하지만 답장이 오자 걱정은 훨씬 더 커졌다. 부모님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 보기 위해 빨리 주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즉시 온 응답은 아니었지만,

나는 선교부 회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 대안을 논의했다. 하나는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가서 그 서류를 받는 것이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동반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강화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의 크신 명령에 땅이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물몬서 5:23) 이 구절을 읽자 마음속 혼란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일은 온전한 노력을 기울여 선교 사업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얼마 뒤, 다시 부모님께 편지가 왔다. 편지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내가 다시 한 번

나는 그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지,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 선교 사업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국방부에 가 보았다. 여러 사람을 거친 끝에 어떤 곳을 안내받았지. 나는 매우 낙담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맨 처음 보인 것은 아주 큰 문이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지만 덩치가 아주 큰 군인 두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 나는 용기를 내서 그곳을 통과했어. 그리고 안내받았던 그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수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아들은
주님의 병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지.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드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신분증을 보여 주며 네 이름을
말했더니 장교가 비서를 부르면서, ‘이
젊은 선교사의 서류를 갖다 주게.’라고
말하더구나.

그는 그 서류에 서명한 뒤 봉해서
나에게 건네주었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단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기쁘게 악수를 했지. 아들이, 이제
너의 서류는 잘 준비되어 있다. 이제 너는
주님의 진정한 병사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 드러야겠구나.”

나는 이 편지를 받고서 그분께서
나를 변호하시고자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지혜를 밝혀
주신 데 감사드렸다. 나는 우리가
모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기를 기도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14:7~8) ■
글쓴이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산다.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장교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에는 무수히
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사무실 벽에는
화려한 증서가 가득 걸려 있었어. 장교는
진지하고 절도 있게 나와 악수를 한 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더구나.

나는 대답했지. ‘제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
입증 서류를 가지러 직접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 서류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장교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찾으러
와야만 합니다.’라고 하더구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영으로 내
머릿속을 밝혀 주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말했지. ‘귀하도 지휘 아래에 병사를
많이 두고 계시죠? 그들이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귀하에 대한 그들의
책임일 테고요. 마찬가지로, 제 아들도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진정한 친구 찾기, 그리고 진정한 친구 되기

영국 옥스퍼드의 청소년들이 진정한
우정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어릴 적 죽마고우부터 수학 시간에 만난 새 친구까지,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선하고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친구는 큰 힘이자 축복”이다.([2011], 16쪽)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친구를 찾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가?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았다. 진정한 친구에 대해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런 친구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 힘을 얻고 강화된 적이 있을 것이다.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아론 엠: 친구를 만나는 건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친구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고, 그 친구가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나도 느껴야 합니다. 친구와 있으면 편안합니다.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턴 에이치: 좋은 친구란 지지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죠.

매디 에이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레이첼 피: 좋은 친구는 대개 곁에 있어 주고 내 편에 서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에머 에프: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집에서 공부하려고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그 애는 제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 뭐 하니? 우리 한번 만나야지.” 그 당시에 저는 친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애는 제가 슬퍼하는 순간을 어김없이 알아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알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 인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스 에이치: 우정은 개인적인 것이고, 인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애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지에 따라서 “인기 있는 학생들”을 구분 짓곤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좋은 우정을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은 인기도 많은 거지요. 제 생각에는 잠깐 인기를 얻다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에머 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진정한 우정과 인기를 구분 짓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기는 있지만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 그다지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또 정반대로 정말 인기가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몇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태도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이작 피: 정말 좋은 친구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친구로 남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친구로서 할 일이니까요.

그레이스 에스: 진정한 친구는 서로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예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가?

한나 피: 제가 학교에서 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 주었어요.

앤드류 에스: 제 친구는 축구를 할 때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벨라 에프: 종교 연구 수업 때문에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집회소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종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친구가 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가 욕을 안 했구나? 알았어, 좋아, 네가 있을 때는 우리도 욕을 안 할게.” 우리는 커피 같은 걸 마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그 애들은 “좋아, 꼭 커피숍에 갈 필요는 없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정말로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에머 비: 친구들은 아주 허물없이 제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 네가 믿는 걸 반드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알고 믿는 것을 나도 알면 네가 네 종교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해.”

캘빈 비: 이사 온 뒤로 학교에서는 친구를 거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뿐이죠. 청소년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저를 친절히 대해 줘요.

에머 에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와드에는 청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후기 성도 친구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후기 성도 청소년 대회에서 한 친구를 사귀었고, 그 덕분에 활동 모임에 가는 데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애가 저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 덕분에 마침내 저는 후기 성도 친구들이 생겼고, 그게 도움이 되었죠.

“좋은 친구는 친구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첫날을 마칠 때 즈음엔, 모든 사람이 벌써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조심해서 친구를 택하라”는 충고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들처럼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세상의 편의, 피상적인 목표나 작은 포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영원한 목적을 지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모범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113쪽.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가?

윌리엄 에스: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친구가 되지요.

제임스 피: 저는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요. 이를테면 방학이 되어서 미국에 갔을 때, 브리검 영 대학교 축구 캠프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첫날을 마칠 즈음엔 모든 사람이 벌써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활동하고 점심을 먹고 서로 돕다 보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스 에이치: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과 흥밋거리가 같으면 되지요.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우정이 싹터요.

진정한 친구란 ...

그레이스 에스: 진정한 친구는 나에 대해 아는 사람입니다.

앤드루 에스: 진정한 친구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피: 진정한 친구는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턴 에이치: 곁에 있을 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해 주는 친구입니다.

캘빈 비: 진정한 친구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아론 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솔직하게 보여 주세요. 진정한 여러분을 보여 주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를 사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표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며, 항상 여러분 곁에 남을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아이작 피: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으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응원하십시오.

에머 비: 좋은 친구는 이런저런 일을 권유해 주고 초대합니다.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고, 소소한 질문들을 해 줍니다. 그런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임스 피: 좀 더 마음을 열고 지금 어울리는 친구들 무리에 다른 친구를 초대하고, 그런 다음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그 곁에 있어 주십시오.”



진정한 '좋아요'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보내는
미소만 카운트됩니다.



처음으로 성전에 가던 날



다른 사람이 성전에 갔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도 직접 성전에 가 보고 싶었다.

마티아스 페드라자

내가 열여섯 살 무렵, 우리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나도 성전에 가게 되었다. 나는 필요한 경비를 모으는 한편, 성전 추천서를 받을 만큼 합당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성전 추천서를 받아 온갖 유혹이 밀려와 내 합당성을 흔들려 놓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성전에 가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나만의 경험과 간증을 쌓고 싶었다.

성전으로 출발하는 날 밤이 되었다. 그런데 버스에 타기도 전에 그냥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버스로 열 시간 거리를 가는 동안, 교회 회원 한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은 내게 아주 친절하셨다. 연세가 예순은 되신 이 형제님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자신에게 찾아왔던 삶의 고난을 모두 극복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 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나에게 거리를 두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고 말씀드렸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네게 훌륭한 친구를 보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네 곁을 지켜줄 거야. 꼭 기억하렴.” 형제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나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자 마음의 짐이 사라져 버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들아, 어서 오너라.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성전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건축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몇 차례의 침례와 확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짐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게 그 짐을 견딜 힘이 생긴 것 같았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성전에 들어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나는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산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 열쇠의 회복

구주께서는 오늘날 이 지상에 모든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에베소에 있는 고대 극장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 있던 대지에 밝은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말씀 주제는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수백 명의 후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 년도 훨씬 전에 에베소인들이 앉았던 여러 줄의 계단형 돌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중에는 두 분의 살아 계신 사도,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시듯, 저는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두 책 모두 바울과 그의 동료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한을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울과 그의 직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아 계신 두 분의 사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파우스트 장로님께서 저를 따로 데려가시더니 미소를 띠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몇 주 후에야 그분은 제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후로도 제게 큰 가르침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성도들이 그가 지니고 있던 열쇠의 가치와 권능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사도들이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 때문에 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주님께에서부터 그분의 사도를 거쳐 주님의 교회 회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신권 열쇠의 연결 고리가 지닌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길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권 열쇠에 관한 간증을 쌓아 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주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모든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가르쳤습니다.(에베소서 2:19~20 참조)

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및 모범의 분명함과 권능에도 불구하고

배도가 올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사도행전 20:29~30; 데살로니가후서 2:2~3 참조) 그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상에서 거두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관해 편지를 쓰며,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0)

바울은 하늘이 다시 열리는 시대에 있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을 고대했습니다. 그가 고대하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필멸의 인간에게 아론 신권과 천사의 성역 및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를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고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돌아와 그들이 필멸의 세계에 있을 때 갖고 있던 열쇠를 조셉에게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835년 2월, 필멸의 인간이 거룩한 사도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1844년 3월 말경에는 신권의 열쇠가 십이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조셉 이후, 브리검 영부터 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그 열쇠들을 지니고 행사해 왔으며, 또한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신권 열쇠

그러나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를 위한 신권 열쇠의 권세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권 열쇠를 지닌다는 것을 영감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살아 계시고, 또 그분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우리의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신권 열쇠를 회복하셨음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쇠들이 중단 없이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게

전해져 왔으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께서는 스테이크 회장과 지방부 회장 및 감독과 지부 회장에까지 이어지는 신권 열쇠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성신의 증거로써 자주 새롭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주님의 선택된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에서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봉사에서 주님의 권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그런 제 기도와 간구는 주로 제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을 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를 받음으로써 신권 열쇠가 하나님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 수 있으며, 거듭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бри검 영이 말씀했을 때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순교한 선지자 조셉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과 같이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¹ 그러나 응답은 것처럼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확신과 함께 평안과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이고, 그분께서 성임하신 종들을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시며,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행사하고 그런 확신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삶과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바랐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에베소서 2:20) ■

200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세미나리 학생 학습 지도서 (2001), 158쪽.



제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친 구와 복음을 나눌 방법은 많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행위, 복장,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디모데전서 4:12 참조) 다음 제언을 염두에 두자.

- 숨은 의도나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돕고자 노력한다.
-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 친구의 선택의지를 존중한다.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복음을 나누는 방식은 달라진다. 종교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 열려 있어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 신앙을 기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살면서 고난을 겪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다. 내 친구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를 도울 방법을 찾고자 기도한다.

친구가 무엇에 고무되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면 친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공통점을 바탕으로 믿음을 나눈다. 가령, 친구가 봉사를 좋은 일로 여긴다면, 친구를 와드 봉사활동에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친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다. 친구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 그 친구와의 우정을 지킨다. 언젠가 친구도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일 것이므로 영을 따르며 꾸준히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를 더 배워 보도록 권한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친구가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마뉘엘 엘, 18세, 멕시코 멕시코주



모범이 되세요

저는 더 어릴 적에는 복음을 가르칠 때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틀린 생각이었어요. 복음을 나눌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믿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상황에서 진정 행동은 말보다 큰 목소리를 낸답니다. 모범으로 이끌고 가르치세요.

애먼 더블유, 18세, 미국 애리조나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니까요.(엘마서 39:44 참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시편 19편 1절 같은 경전 구절을 함께 공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증을 얻도록 성신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소피 케이, 17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복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런 후 다음에 그들을 만나면 복음과 관련된 대화로 연결되는 화제와 주제를 꺼내세요. 반드시 그들을 교회나 활동에 초대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친절히 대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발레리 케이, 14세, 미국 네바다 주

간증을 나누세요

복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친구와 복음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같은 단순한 사실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모범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삶에서 얻는 행복의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빅토리아 에스, 18세, 브라질 피아우이

믿음을 나누는 이유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나요?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힘과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래도 친구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꺼이 친구의 선택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친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아 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친구이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제가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은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엇 장로, 20세, 일본 삿포로 선교부

빛을 나누세요

친구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친구가 여러분의 모범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빛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친구가 찾고 있는 천사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친구를



간증을 얻는 법

“어떻게 사람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지식인데 그것을 얻는 첫째 단계는 알고자 진실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에서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소망하고 구할 때, 우리는 간증을 얻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달린 에릭스 옥스 장로, 십이서도 정원회, “간증”,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7쪽.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구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친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메이슨 이, 16세, 미국 애리조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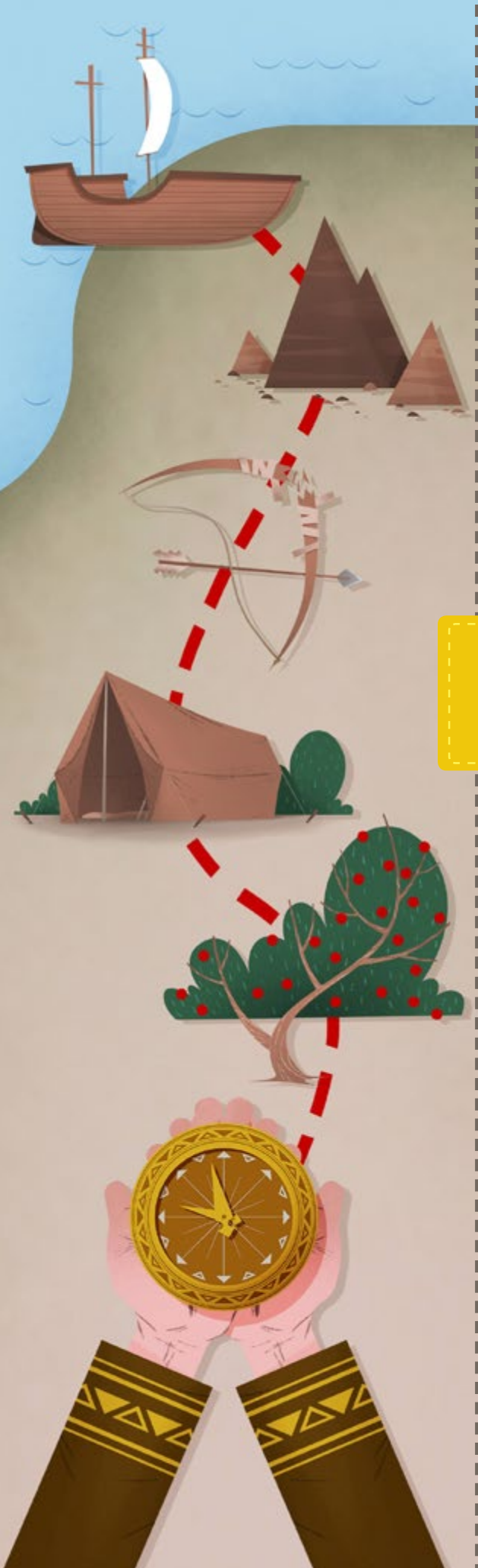
다음 질문

“저는 다른 사람들과, 특히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저 자신을 비교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7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워드(또는 지방),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리아호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 주는 영적인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가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축복사의 축복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집사

때로는 삶을 헤쳐 나가는 것이 힘겨워 보일 때가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간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는 등 굵직한 일들을 줄지어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겨우 십대가 아닌가! 리하이에게 그랬듯, 문밖에 리아호나 같은 도구가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기만 하면 절대 길을 벗어날 일은 없을 텐데 말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기도, 경전, 부모님과 지도자의 충고, 성신의 속삭임, 연차 대회 등 삶의 길잡이가 되는 원천이 이미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리아호나라고 할 수 있는 축복사의 축복이 있다. 축복사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관한 개인적인 계시이다.

축복사의 축복이 일종의 영적인 GPS라고 생각해 보자. 축복사의 축복은 그저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 준다. 하지만 명심할 점이 있다. 축복사의

축복으로 인도받으려면 리하이의 리아호나가 작동했을 때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주의와 부지런함이 바로 그것이다.(니파이전서 16:28; 모사이야서 1:16 참조)

주의와 부지런함

주의란 무엇이며,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 주의란 단순히 주어지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귀 기울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축복사의 축복이 삶의 리아호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을 따르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기록된 경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행위와 순종하는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전서에 사용된 히브리어에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대부분 동일한 용어로 쓰입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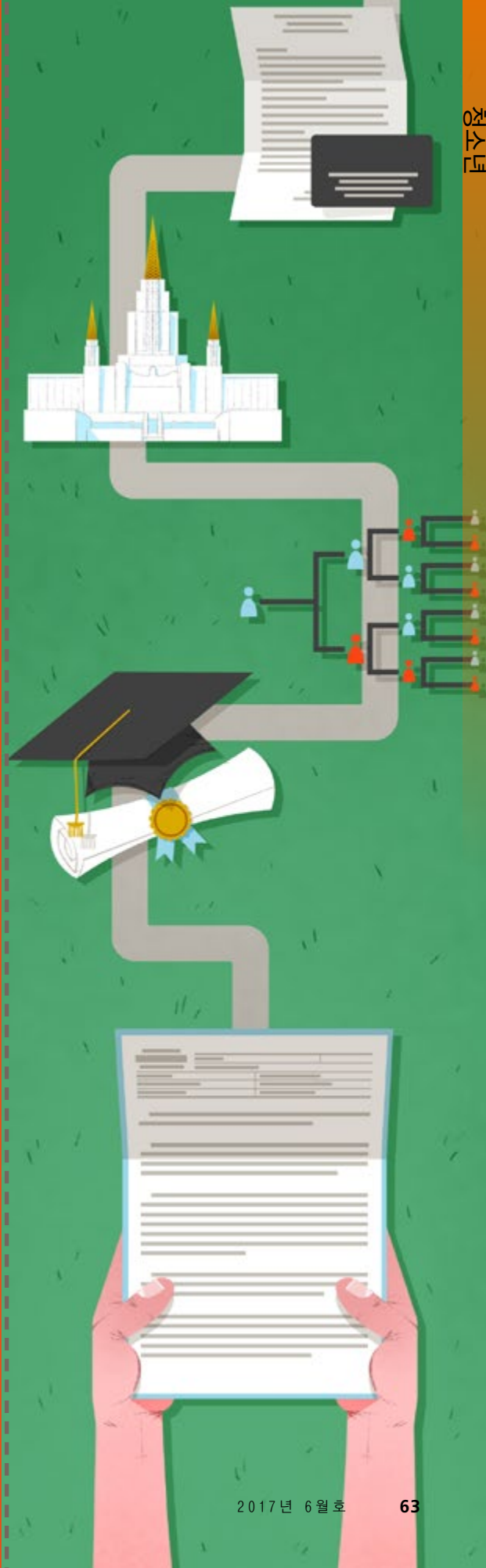
축복사의 축복에서 배움을 얻는 데 쓰이는 또 다른 열쇠는 부지런함이다. 부지런함이란 성실하고 주의 깊으며 끈기가 있다는 뜻이며, 확고하고 한결같은 노력을 말한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부지런함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배우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²

축복사의 축복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진지하고 열심히 축복사의 축복을 연구하고 그것대로 생활할 계획을 세운 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따라야 할 본보기

엘마 이세는 아들 힐라맨에게 전하는 조언에서 리아호나는 “예표”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다. 그는 엘마서 37장 38~45절에서 다음을 언급한다.

1. 주님께서서는 여행의 경로를 알려 주시고자 나침반과 같은 리아호나를 예비하셨다.
2. 리아호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 작동하였으며, 이로써 “날마다 …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 기적”이 일어났다.



3. “작은 방편”들을 통해 “기이한 일”이 이루어졌다.
4. 리하이와 가족들이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을 때면,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5.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산만해지면 그들은 곧바른 진로로 가지 못했다.
6.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바른 길을 알려 준다.

이러한 원칙은 축복사의 축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길은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볼진대 영원히 살”
 것이다.(앨마서 37:46) ■

주

1. 러셀 엠 넬슨, “배우기 위해 경청하라”, 1991년 7월 연차 대회. [번역 수정]
2. 헨리 비 아이어링, “부지런하십시오”, 2010년 5월 연차 대회.



우리 길을 인도하며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여정]을 안내하고 길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리아호나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영적으로 준비되어”, *리아호나*, 2010년 2월호, 5쪽.

축복사의 관점

다음은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네 명의 축복사가 답한 답변의 일부이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 모임, 공과,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교리와 원리,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축복사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개인에게 특정된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신성하게 타고난 성품과 받은 은사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룹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맺어졌음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클레인 에이 스티드, 캐나다 레이먼드 앨버타 스테이크

내 축복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축복과 내 축복을 비교해도 괜찮을까요?

“축복사의 축복은 성스럽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직계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내용을 나누거나 그 축복의 해석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축복사의 축복에 있는 내용이나 문장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식이 아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축복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키스 엘 스테이플턴, 미국 카터스빌 조지아 스테이크

자신의 혈통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혈통을 알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과거에 살았던 이들과 앞으로 살아갈 이들, 즉 모든 사람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바라십니다.”

-바체슬라프 에이 프로토포포프, 모스크바 러시아 스테이크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시점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감독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준비되는 시점을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시작할 무렵, 그녀는 과연 자신이 준비가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전히 좀 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자매님이 받은 응답이에요. 영이 자매님 마음에 그런 평안을 준 것이죠.’”

-키스 엘 스테이플턴, 미국 카터스빌 조지아 스테이크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구주께서는 준비에 관해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에서 시작하십시오. 첫째는 기도와 금식이며(마태복음 14:23 참조), 둘째는 개인적 계시를 받고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경전 공부입니다.”

-에밀 이 베일리, 프랑스 파리 남 스테이크

영감은 축복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됩니까?

“처음으로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물론 저는 깊이 생각하고 공부했으며 영적으로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줄 순간이 되자 방안 가득 영이 느껴지면서 두려움이나 억압감은 사라졌습니다. 영이 있었기에 저는 마음속에 스며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브이 프로토포포프, 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크



마틴은 홍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의 선택

린지 태너 및 베서니 바르톨로뮤

실화에 근거함.

“진실하고 참된 자 되어라, 의를 위해 서는 자 되라”

(어린이 노래책, 81쪽)

마틴은 조금씩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가 어깨를 흔들고 세셨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일어날 시간이야.”

마틴은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아직 밖은 깜깜했지만, 마틴은 몇 시인지 알고 있었어요. 마틴의 가족은 매일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 함께 물몬경을 읽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마틴은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크게 하품을 했어요. 마틴의 형과 누나들도 그곳에 와 있었지만, 모두 졸려 하는 눈치였죠.

가족들은 돌아가며 각자 물몬경을 오 분씩 읽었어요. 처음에 마틴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눕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들으려고 노력했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을 때마다 마틴은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읽기를 마칠 때쯤에 마틴은 영적으로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마틴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매일 필요했어요. 케냐에서는 마틴과 비슷한 나이의 교회 회원은 몇 사람밖에 없는 데다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마틴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남학생 모임에 가곤 했어요. 한번은 그 모임에서 하는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마틴은 그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캠핑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장작도 패 보고, 모닥불 지피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한 캠프 지도자가 찻주전자를 꺼내 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같이 홍차를 마시자꾸나.”

아이들은 다들 좋아했어요. 집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차를 마시니까요. 모두들 컵을 하나씩 들고는 차를 따라 주기만 기다렸어요.

마틴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홍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마틴은 계명을 지킬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가 기억났어요. 가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함께 물몬경을 읽었을 때 느꼈던 행복한 느낌도 생각났죠. 물몬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틴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캠프 지도자가 마틴의 컵에 홍차를 따르려고 하자 마틴은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홍차를 마시지 않거든요.”

지도자는 약간 놀란 눈치로 쳐다보더니, 다른 아이들이 홍차를 마시는 동안 마틴은 물을 마시게 해 주었어요. 다들 마틴이 홍차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아무도 마틴을 놀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마틴은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몸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상황에서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기뻐기 때문이었죠.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도전 과제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나의 복음 표준)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는 해로운 것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부모님 또는 지도자들에게 그분들이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쭙어 본다.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인형 만들기, 친구 사귀기

조던 라이트, 미국 유타 주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이고, 독일에
살아요.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제 동생인 조사이어와
코라 제이드예요.

1

훌륭한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살기가 위험해질 때 독일로 와요.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죠. 그
아이들은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장난감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저는
엄마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여쭙
보았어요.



2



엄마와 재봉하기
저는 엄마와 재봉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재봉틀 페달을 밟고 인형 안에 솜을 집어 넣는 일을 했어요.



3

행복 메시지

우리 가족은 여기서 난민들에게 줄 옷가지와 장난감을 모았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주기도 했답니다.

6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모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장난감을 좋아하며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4



새로운 친구
우리는 손수 만든 인형들을 난민 캠프로 가지고 가서 그곳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좋아요!

잭슨의 아이디어

항상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친절함 요정이라 생각하고 몰래 봉사해 보세요.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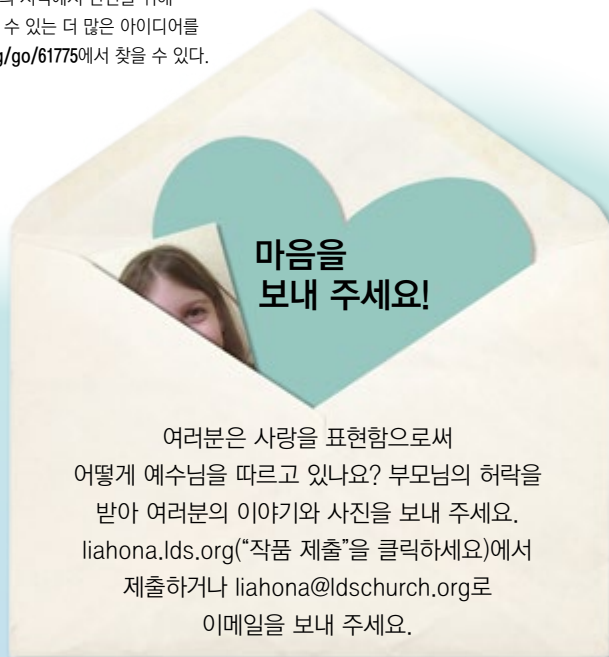
여러분의 지역에서 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lds.org/go/61775에서 찾을 수 있다.



5

난 하나님의 자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해 주었어요.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를 연주하자 슬퍼 보이던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죠. 정말 정말 좋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 (“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에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계명의 책

이 인물들 그림을 잘라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라인 롤린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라고 불렸어요. 이 계시의 일부는 계명의 책에 실렸어요. 이 책이 인쇄되던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로 이주해 온 교회 회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냈죠. 마을 사람들은 인쇄기를 길거리로 내던졌어요. 메리 엘리자베스와 캐롤라인 롤린스라는 두 자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계명의 책 인쇄 원고를 모았어요. 두 자매는 성난 마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 숨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계명의 책에 실린 계시들은 나중에 교리와 성약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들 이야기



Jesus es mi luz



“예수님은 제 빛이세요”, 비앙카 브이, 6세, 콜롬비아 툰다마 주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의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나는 경전이 참됨을 알아요”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활동을 했다. 아이들은 경전에 관련된 게임들을 하면서 복음 진리를 배우고 외우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에 대해 배우며 갑옷을 입어 보기도 했고, 신앙개조를 이용한 낚시 놀이도 하고, 리하이의 꿈을 실현해 보기도 했다.



저는 침례를 받기 전에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토마스 비, 8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일본 삿포로 성전, 하라다 케이, 8세, 일본 카나가와 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생활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아버지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협력자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장차 의로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시블론처럼

“내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 백성들 가운데서 보인
너의 충실함과 너의 부지런함
으로 ... 인하여 이미 네게서 큰
기쁨을 얻었느니라.”(엘마서 38:3)

몰 문경에서 제 영웅은
시블론입니다. 그는
진정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부친인 엘마 2세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엘마는 시블론이
젊어서부터 계명을 지켜 온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엘마서 38:2
참조)

그리고 시블론은 계속 의를
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는 그가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선택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시블론 같은
선교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하고 순종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은
그가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선교사들이 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교부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훌륭한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며, 저도 압니다. 이제 장로님도 압니다. 그 밖에 또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블론과 같은 사람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라와 함께

쉐리 가빈
실화에 근거함.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리지와 샤페어는 자라를 초대해서 같이 놀았어요. 어머니께서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 여자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직접 키우는 망고 나무에서 망고를 따서 썰어 주셨고 사과와 포도도 접시에 올려 주셨어요. 리지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리지는 자라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라, 너희 집에서도 혹시 기도를 하니?”

“기도? 그게 뭔데?” 자라가 다시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샤페어가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 다음, 음식 축복을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샤페어가 말했어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쉬워!”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린 그냥 먹어.” 자라가 말했어요.

리지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리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어머니는 식탁에 얼음물이 담긴 컵을 가져다주시며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리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괜찮단다.”

리지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리지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자라도 기도하면 그런 행복한 느낌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리지가 자라에게 말했어요. “너도 한번 해

봐. 기도는 참 좋은 거야.”

“나도 기도하는 게 좋아.” 샤이엔도 거들었어요. “기도하면 내 안에서 환한 미소가 퍼지는 기분이 들거든.”

자라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한번 해 볼게.” 그러면서 자라는 망고 한 조각을 베어 먹었어요.

리지와 샤이엔은 친구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 주어서 행복했어요. 세 아이들은 간식을 다 먹고는 놀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

글쓴이는 호주 퀸즐랜드에 산다.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김 웹 리드

하루는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의 집으로 와 주시도록 부탁했어요. 그의 딸이 병에 걸려 축복이 필요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을 때, 12년 동안 병을 앓아 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는 깨끗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이 신앙이
있었기에 병이 낫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기에는 너무 늦어 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부모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그분의 권능은 여전히 이 지상에 있어요. 우리는 그 권능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신권 축복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마가복음 5:22~43 참조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날 신권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신권 축복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신권이 없다면 이 필멸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공허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신권 권능이 지상에 없다면, 사탄은
마음껏 돌아다니며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치게 해 주는 성신의 은사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선지자도
없을 것이며, 신성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축복하거나
침례할 권세도, 치유하거나 위안을 줄
권세도 없을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
없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1~3 참조) 빛도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

... [그러나,] 하나님의 신권은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빛을 줍니다.
우리는 신권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와 간증과 계시로 인도하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

...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권은 그
축복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 시대에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신권과 그
축복의 회복은 1820년 당시 소년이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더 많은 하늘의 사자들, 즉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와 엘리야 및 다른 사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권능과 권세 및

인류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열쇠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고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과 함께 이 지상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지상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습니다. ...
이 경륜의 시대에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지시하에,
오늘날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신권의 권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장엄하고 영원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9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황금빛으로 물들어,
대니얼 에프 게르하르츠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자립과 복음 학습

여러분이 복음 학습에서 자립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



42쪽

청소년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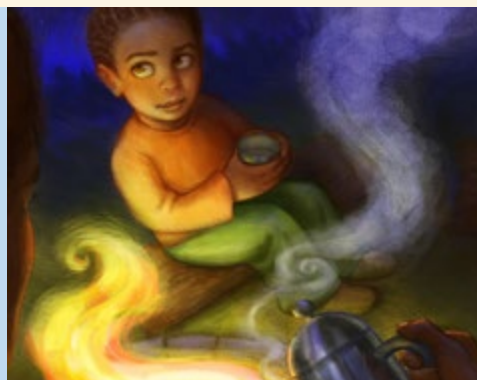
진정한 친구 찾기, 그리고 진정한 친구 되기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우정과 인기는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각을 나눈다.

어린이

마틴의 선택

마틴은 홍차를 마시지 않으면 친구들의 기분을 망칠까 봐 걱정되었어요. 과연 그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